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 60:1)

# 만민중앙소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news.manmin.or.kr

등록번호 : 다-1840(1989. 7. 12.)  
편집처 및 발행소 : 만민중앙성결교회  
발행인 : 이재록  
인쇄인 : 김신경  
편집인 : 빈금선

서울 구로구 구로동 851번지 ☎02-818-7000  
e-mail : manminnews@hotmail.com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띤 만민중앙성결교회

제359호(구379호) 2008. 2. 24. (격주간)

## 제16회 연합성결신학교 졸업식 제2회 만민국제신학교 졸업식



예성연합교단 산하 신학교육기관인 연합성결신학교는 성결의 오중복음을 근간으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참된 주의 종과 일꾼 배출에 힘쓰고 있다. 1992년 3월 25일 개교 예배를 드린 후, 16회 졸업식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주의 종과 교회 직원, 선교사, 일꾼으로 충성하고 있다.

특히 2008년도에는 새롭게 학사를 편재하여 사역 현장 교육을 실시, 능력 있는 영적 사역자를 양성한다.

연합성결신학교와 만민국제신학교 졸업식이 지난 2월 14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거행됐다.

이중원 교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졸업식은 이정호 부총회장의 기도, 이재록 이사장의 설교(『영의 사람』, 살전 5:23), 김상태 학장의 훈시, 전 서울여대 총장 정구영 박사의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이사장상은 이상조 교육전도사(마산), 학장상은 이지현 교육전도사(서울)가 각각 수상했다.

### 해외소식

지난 2월 17일, 아프리카, 일본, 라틴 아메리카에 이어 러시아 총회장 임명식이 있었다.

러시아 총회장으로 임명된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샤프 페테르부르크 만민교회 담임)는 '2003 이재록 목사 초청 러시아 연합대성회' 시 조직위원으로 일했으며, 이재록 목사를 통해 펼치는 하나님의 권능에 큰 감동을 받았다.

2007년 4월, 서울 본교회에서 파송된 후 만민국제신학교 러시아 지부 설립과 제자 양성, 90여 개의 지교회와 협력교회의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해 왔다.



### 이재록 목사 저서 4개 언어로 전자책(e-book) 발간



당회장 이재록 목사 저서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상·하)』, 『깨어라 이스라엘』이 전자책(e-book)으로 2월 10일 발간됐다.

영어, 러시아어, 히브리어, 불어 4개 언어로 14개종의 도서가 해외선교용으로 제작됐다. 아울러 동영상으로 '이재록 목사의 환자를 위한 기도'가 담겨 수많은 응답과 치료의 역사가 기대된다.

### 찬양인도자 교육

2월 19일, 예능위원회 위원장 이수진 목사를 강사로 '찬양인도자 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글로벌 선교시대에 부응하

여 찬양 선교사역을 감당할 전문 인력 양성의 하나로 찬양 인도자에게 필요한 영성과 음악적 지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칼럼

Column

### 어리석은 욕심

원숭이 사냥법 중에 원숭이의 주먹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자루에 음식을 넣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숭이가 다가와서 손을 넣고 음식을 잡는데 그 주먹이 자루에서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손을 떼면 쉽게 뺄 수 있는데도 원숭이는 끝까지 먹이를 잡고 소리만 지르다가 결국 사냥꾼에게 잡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손에 쥔 작은 것에 연연하여 욕심을 부리면 결국 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어리석은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람들로 진정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꾸려 나갈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15)

글 · 이재록 목사 경향신문 연재중인 '길' 칼럼에서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대예배	1부 · 오전 10:00 2부 · 오전 11:30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오후 8:00
[빛과소금선교회 오후 9:00] [요식업선교회 오후 11:00]		수요찬양예배 [빛소금]	오후 9:00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오후 4:00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오후 3: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아동주일학교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40 저녁/ 오후 1:30
금요철야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새벽 5:00		

#### 교회 약도



- 시내버스: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오거리 하차)
-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 (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문의: 차량국 ☎ 02-818-7391~5)

#### 만민중앙소식을 받아보시려면

본 소식을 받아 보기 원하시는 분은 먼저 전화로 구독신청하신 후 우송료를 지정은행 또는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우 송 료 : 1년분 5,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 구독신청 : 02-851-3845, 818-7309
- 온라인 번호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 보혜사 성령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16)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곧 사도행전 2:38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러한 성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인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함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받아야 하겠습니다.

## 1. 하나님과 하나이신 성령

성령(聖靈)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이며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섭리를 이루는 삼위일체 중 한 분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三位一體) 하나님, 곧 성부(聖父) 하나님, 성자(聖子) 하나님, 성령(聖靈) 하나님은 각기 활동하는 방법은 다르나 하나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지닌 성령 하나님은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영으로서 활동합니다. 곧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하며 인간 경작의 섭리 속에서 많은 사역을 이루지요. 구약시대에는 ‘여호와와 신’, ‘하나님의 신’, ‘성신’ 등의 이름으로, 신약시대에는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영원까지 함께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면, 창세기 1:1-2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41:38을 보면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는 칭송을 들었고, 출애굽기 31:3-5을 보면 하나님께서 브살렐을 지명한 후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하여 성막 건축을 이루셨지요.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도 사사들을 세우고, ‘여호와와 신’이 임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삿 3:7-10, 6:34). 마지막 사사이며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사무엘,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 그 뒤를 이은 다윗 왕에게도 ‘하나님의 신’, ‘여호와와 신’이 임했고(삼상 10:10, 16:13),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경

건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하여금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했습니다(눅 2:25-38).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이 땅에 온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으며(마 1:18, 20),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며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셨지요.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죄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할 수 없으므로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친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요일 2:27).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과 하나인 성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 2. 보혜사(保惠師)로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16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죄를 짓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죄의 종으로서 구원과 멀어집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 해도 어떻게든 다시금 죄 가운데로 이끌고자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비밀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란 법정 대리자, 또는 조연자라는 뜻으로 성령의 사명을 담은 호칭입니다.

요한복음 14:16-17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여 부활 승천 뒤, 진리의 영인 성령이 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11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로 인해 거듭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보혜사 성령 안에서만이 온전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 3. 돕는 영으로서의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며(롬 5:5),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고(히 12:4)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떤 연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능히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37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하여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며(고전 2:10) 그 마음 자체가 동일한 성령이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속성이 있어 성령이 바라는 바를 따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마음이 기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 곧 죄를 범하면 성령을 근심케 함으로(엡 4:30) 기쁨과 평안이 떠나 곤고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지요.

성령은 ‘돕는 영’으로서 개인교사처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무엇을 지시하기도 합니다(요 14:26, 눅 12:11-12). 사도행전 6:10에 어떤 사람들이 스테반과 변론했는데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다’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리 배움이 짧고 말 주변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성령이 하라는 대로 따라 함으로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며 친히 간구해 주고(롬 8:26), 위로하며(행 9:31) 행할 바를 지도하는 등(행 20:28) 매우 섬세하고 자상하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요 16:1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이 어찌하던지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며 행복한 신앙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내려놓을수록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

## MISSION



선교사를 희망하는 예비 선교사나 감히 선교사 꿈을 갖지 못하겠다는 이들에게 고백한다. “이제 선교가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요.”

필리핀은 천주교 나라이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 1년에 한두 번 성당에 나가 마리아 동상의 발을 만지며 복을 비는 것이 전부다.

더운 날씨 탓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잠을 자거나 머릿니(주발충: 虻髮蟲)를 잡으며 시간을 보낸다. 잔돈 푼을 버느라 카드 판을 벌인 광경도 이곳 저곳에서 볼 수 있다.

그들의 생활 태도와 그릇된 사고방식은 내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왔다. 옳다고 생각한 것을 가르치다 보니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했다. 결국 그들은 나를 멀리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처음 선교사로 파송될 때 가장 두렵던 것은 환경이나 언어 문제가 아니었다. 바

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당회장님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분에게 괴로움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 모습 이대로 선교사로 나가도 될까?’ 스스로 생각해도 몹시 민망했다. 막상 현지에서 사역하다 보니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나 회개를 많이 했다.

지난해 MMTC(만민세계훈련원: 선교사 양성기관)에서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온 적이 있다. 거기에는 청년, 장년 등 다양한 계층의 성도가 동참했다.

그 중에 가장 연장자인 기드온(영어 이름을 사용하여 한국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집사가 필리핀 현지 성도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다. 그는 ‘헬로우’, ‘컴’, ‘잇 다운’ 정도의 아주 간단한 영어만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니 언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모두

들 아버지 같다고 좋아했다.

그렇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목자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와 우리가 염려하는 것까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신다.

여기엔 권능의 무안 단물(출 15:25)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의 위력을 빼놓을 수 없다.

까비떼만민교회(담임: 조찬형 목사)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손수건 기도회가 있다. 덥고 습한 날씨 탓인지 피부병이 흔하고 많은 어린이가 천식으로 고생한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질병이 삶을 위협한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 손수건 기도회를 통해 질병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 눈

뜨고 보기에 힘들 만큼 끈직한 종기도 손수건 기도와 무안 단물 한 번이면 바로 치료받아 다음 예배에 나와 간증하며 감사의 인사를 한다.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참으로 믿게 됐다. 전에는 쌀, 간장 등을 얻고자 교회에 온 이들이, 성전에서 무섭게 큰 소리 치며 무기를 들고 싸우던 이들이 식당 봉사나 예배 준비를 도우며 기도하는 성도들로 바뀌었다.

감사를 드리고 드려도 부족한 지금, 평범한 집사인 내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은, 오직 나를 내려놓을수록 커지는 하나님의 은혜 까닭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 속 선교사 (필리핀 까비떼만민교회)

### 믿음으로 폐결핵을 치료받았어요



박선교 형제 (대전만민교회 고3 선교회)

2007년 4월, 학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결핵일 가능성이 있으니 정밀 검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5월 4일 CT 촬영 결과, 폐결핵은 맞지만 활동성인지 아닌지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6월 9일, 활동성 결핵으로 판명되어 6개월 간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요.

저는 약을 복용하지 않고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6월 29일, 서울로 올라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기도받은 수많은 사람이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기도만 받으면 나올 줄로 알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7월 7일 CT 촬영 결과는 결핵 병변(病變: 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생체의 변화)이 예전보다 더 넓게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어! 이상하다. 어떻게 된 일이지? 왜 나는 기도를 받아도 낫지 않는 것일까?’

순간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기침과 가끔씩 오는 가슴 통증이 저를 괴롭혔지만 마음은 더 힘들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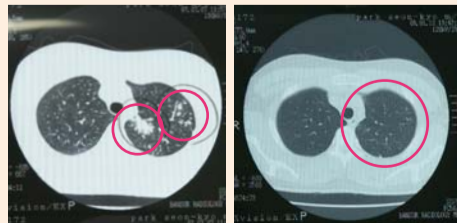
그러던 중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며,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틈만 나면 격투기나 조폭을 소재로 한 저질 폭력영화를 보거나, 노래방이나 PC방에서 학생 신분엔 걸맞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학생부 예배를 빠지면서까지 세상 오락을 즐긴 적도 있었지요.

7월 넷째 주와 그 다음 주에 치러진 전국 학생 하계수련회와 만민기도원 환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잘못된 일들을 철

저히 회개하니 당회장님께 기도받으면 낫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8월 3일,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고 16일 CT 촬영 결과에서 결핵 병변이 현저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2008년 1월 12일 병원 검사 결과, 폐결핵이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치료받기 전 (폐결절들이 새로 생겨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받음)

치료받은 후 (폐결절들이 없어짐)

# “죽음 앞에서 하나된 우리 삼형제, 세상에 부러울 것 없어요”

물질만능주의로 인해 피를 나누는 가족간에도 끈끈한 사랑을 찾아 보기란 쉽지 않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형제간에 재산 다툼도 서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 때문인지 끈끈한 가족의 정(情)을 나누는 믿음의 일꾼 삼형제가 있어 눈길을 끈다.

만나면 서로 간증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삼형제는 믿음 안에서 선의의 경쟁자가 되었다. 서로의 좋은 점은 배우고 부족한 면은 격려하면서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몇 갑절로 커진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가족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축복의 단을 쌓는 삼형제의 모습에서 행복한 가족의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한다.



**만이 채홍석 집사(전주·49세)**  
신용보증기금 팀장  
전주만민교회 청년부 지도교사

**둘째 채윤석 집사(서울·43세)**  
신촌연세병원 외과 전문의(진료부장)  
WCDN(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 회장



**막내 채효석 집사(청주·40세)**  
(주)아워홈 현장관리 센터장  
청주만민교회 남선교회 부회장

채홍석 집사, 만형인 그는 기도를 쉬지 않고 틈나는 대로 교회에서 봉사하며, 하루하루 충만한 신앙생활을 한다. 매일 아침 가정예배를 드린 것이 벌써 3년째, 그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6년 전만 해도 매주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다. 술과 담배를 자유로이 즐기던 자칭 합리적인 신앙의 소유자였으며, 전북 고창 대종가의 장남으로 한 해 여덟 차례 제사를 지내야 했다.

이를 지켜보던 둘째 채윤석 집사의 마음은 몹시 안타까웠다. 신촌연세병원 외과 전문의(진료부장)인 그는 1992년 전주예수병원 외과 레지던트 시절 당시 인턴인 여상훈 집사(현재 WCDN 총무)로부터 한 권의 책을 받았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맞보며』였다. 책을 읽고 감동받은 그는 2002년 3월 9일, 만민중앙교회 양 떼가 됐다.

교회에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 갖

가지 치료 역사를 보면서 참 믿음을 갖게 된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모 형제를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바쁜 와중에도 그는 교회에 충성하며 가족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거리상 자주 보지 못하는 형에게 ‘만민중앙소식’ 지를 정기적으로 보내며 가족 모임 때마다 전도했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도 역시 전도라고 생각했다. 아내 김은숙 집사(홍익병원 소아과 의사)와 주말마다 시골 부모님께 안부 전화는 물론, 매달 용돈도 더 많이 보내드렸다. 평소 반듯하고 성실한 아들을 대견스럽게 여겨 온 부모님은 그의 정성과 기도로 결국 주님을 영접했다.

2002년 5월 5일 주일, 생일을 맞은 만형 집에 온 가족이 모였다. 가족을 자연스럽게 전주만민교회 주일에

배로 인도했다. 화상(畫像)을 통해 만난 당회장님의 ‘팔복’ 설교는 만형 채홍석 집사에게 큰 감동이 되었다. 마침내 가족의 발걸음은 매주일 전주만민교회로 향했다.

2002년 10월, 채홍석 집사에게 큰 체험이 있었다. ‘이재록 목사 초청 인도 연합대성회’를 화상(畫像)으로 시청하던 중 20년 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치료받은 것이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정서적 긴장이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장의 운동 및 분비 등에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병이다. 새벽이면 배가 아파 잠을 못 이루니 피곤과 짜증이 늘고, 소화도 되지 않았다. 치료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은 것이다. 날 아갈 것 같았다.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도 사라졌다.

신용보증기금 팀장으로 근무하는 그는 하나님 말씀을 좇아 사심을 버

리고 정도를 걷기 위해 노력했다. 섬김과 사랑으로 직원들을 다독거리며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자 좋은 평판이 이어지고, 형제들도 만형인 그를 존경하며 따랐다.

막내인 채효석 집사도 만형의 전도로 2002년 10월, 전주만민교회에 등록했다.

하나님을 믿으니 가족 모두 건강을 되찾았다. 심한 비염으로 고생하던 채효석 집사는 물론 사시사철 감기에 시달리는 아들 지훈이도 건강을 되찾아 병원과는 상관없는 가정이 됐다.

그는 (주)아워홈 현장관리 센터장으로 일하며 교회에서 여러 사명을 맡아 충성하고 있다.

믿음의 일꾼 삼형제, 그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한다.

글·임정미 사진·김일두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가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을 이용한 동시 화상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051)805-1363, 051)805-4194</li> <li>●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래동 ☎051)326-1537, 010-5521-2073</li> <li>●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053)356-4717~8, 011-804-8410</li> <li>● 새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아백화점 부근 ☎053)783-3017, 017-539-1009</li> <li>●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042)625-1205, 633-6283, 011-434-3927</li> <li>●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유촌동 빛고을로) ☎062)513-2455, 011-387-0263</li> <li>●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구(운천초교 앞) ☎062)372-1002, 011-601-1070</li> <li>●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062)266-7001, 011-637-6443</li> <li>●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052)257-5011, 010-9663-1537</li> <li>●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052)291-2253, 016-505-1537</li> <li>●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면 승두리 ☎031)652-9981, 016-278-7712</li> <li>●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041)577-7077, 016-447-7077</li> <li>●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041)881-7000, 010-3030-7025</li> <li>●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041)667-4721, 018-618-6194</li> <li>●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043)283-5004, 010-9271-7017</li> <li>●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울랑동 ☎016-215-0116, 010-6809-588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043)845-0617, 019-278-0641</li> <li>●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마산시 회원구 회원2동 ☎055)247-8891~2</li> <li>●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055)353-9192, 011-745-2119</li> <li>●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055)852-5815, 010-2536-2515</li> <li>●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055)322-7055, 018-605-2254</li> <li>●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중앙동 ☎055)289-9522, 011-9331-4405</li> <li>●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055)648-9107, 011-214-8891</li> <li>●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054)748-5777, 017-846-1009</li> <li>●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2동 ☎054)281-9367, 010-8433-2073</li> <li>●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054)281-2468, 010-7940-9367</li> <li>●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오대동 742-4 ☎054)464-4512, 010-3343-1537</li> <li>●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061)652-8311, 011-602-9522</li> <li>●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873-6 ☎061)284-3133, 010-2629-8275</li> <li>●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061)452-7443, 011-608-3037</li> <li>●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063)223-9991, 018-202-1537</li> <li>●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동 ☎063)853-0675, 011-671-7191</li> <li>●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033)251-1144, 010-7770-2073</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li> <li>●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광동 ☎033)637-0271, 010-7733-3731</li> <li>●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033)641-3790, 017-334-7750</li> <li>●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연동 2307-5 ☎064)745-0675, 010-2468-2251</li> <li>● 영동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02)556-8517~8, 019-234-3719</li> <li>●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02)995-9951, 011-1717-1217, 011-719-2073</li> <li>●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031)485-9143, 017-366-5914</li> <li>●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02)562-863-9857, 011-287-7369</li> <li>●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032)569-3835, 010-7720-7770</li> <li>●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031)781-9830, 017-355-1928</li> <li>●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031)905-2419, 019-276-1014</li> <li>●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031)552-7397, 010-2290-1856</li> <li>●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동 ☎02)489-3766, 010-6712-2073</li> <li>●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032)528-3830, 010-7720-7770</li> <li>●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흥동 ☎031)202-8480, 010-2213-2073</li> <li>●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031)635-9103, 016-718-7458</li> <li>●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031)840-2906, 019-251-3149</li> </ul> |
|--|--|---|